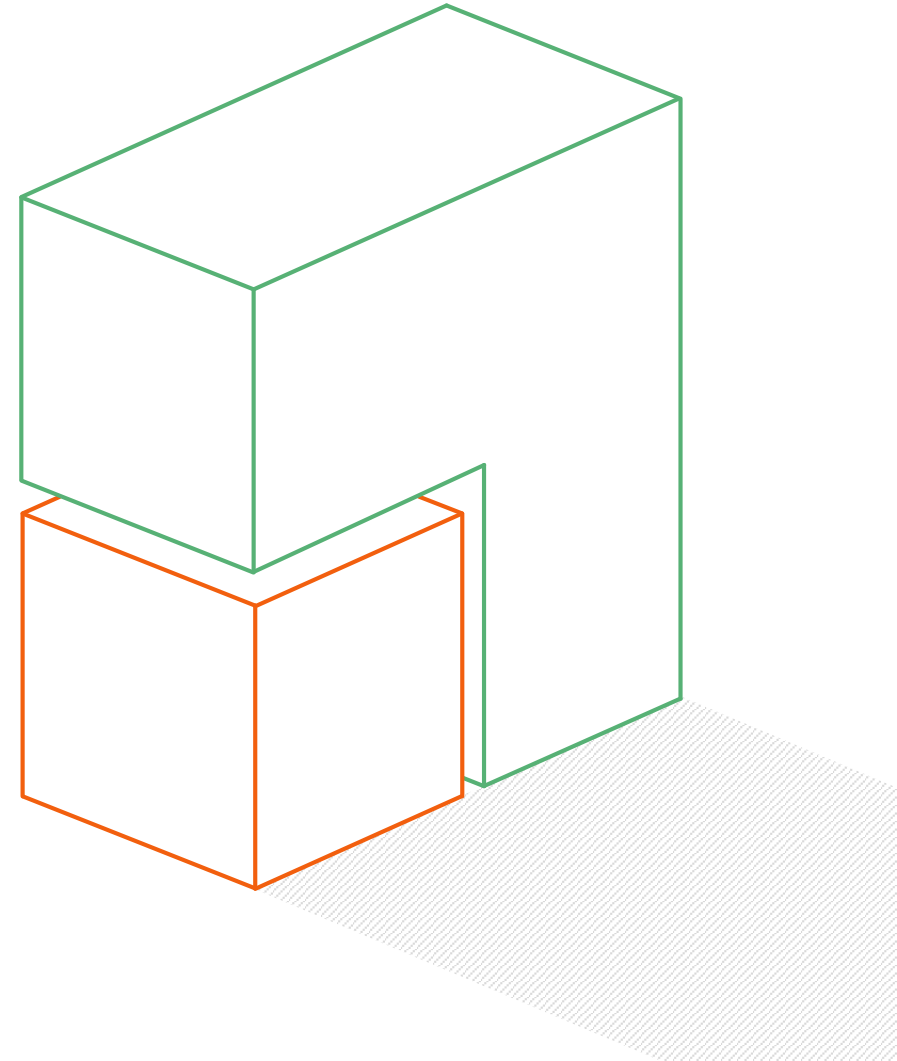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2021-KIHF-069



# 202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정책서비스 관련 동향보고 상반기



# 202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정책서비스 관련 동향보고 상반기

## CONTENTS

### 들어가기 page.2

분석 배경과 목적  
분석 개요  
상반기 언론보도 현황

### 언론동향으로 본 가족정책서비스 이슈 page.6

한 눈에 보는 상반기 이슈

▶ **코로나19**   ▶ **아동학대**   ▶ **다양한 가족**   ▶ **지역센터**

유관기관 연구, 사업

### 나가기 page.14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사업대응 현황  
향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서비스 방향



들어가기



언론동향



나가기



# 들어가기



- 분석 개요
- 상반기 언론보도 현황

## 들어가기 분석 배경과 목적

들어가기



언론동향



나가기



2021년 상반기는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백신접종에 대한 우려와 코로나 확진자 1,000명대 돌파와 확산, 그리고 코로나 생활방역 수칙이 어느정도 일상화된 시기이다. 그 어느때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증가하며 가족과 관련된 이슈도 빠르게 변화되었을 것이 예측된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언론 기사와 유관기관의 연구·사업을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짧은 기간이 우리사회 가족에게 미친 영향을 보다 빠르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비대면’ 등 모니터링 키워드를 포함한 23개의 키워드를 국내 온라인 기사 DB에서 검색, 54개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들을 매월 수집하였다. 그리고 ‘2021년 가족정책서비스 관련 동향보고(상반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매월 수집한 온라인 기사 35,053건의 기사를 이슈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수집된 기사를 분석하기 위해 본문의 명사 상당 어구를 활용해 4가지의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이슈별로 월별 흐름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국회 및 유관기관의 연구·사업 동향을 살펴보고 가족정책서비스 관련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2021년 상반기 동안 가족정책서비스 관련 주요 언론 동향과 유관기관 연구·사업동향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가족정책서비스 관련 사회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의성 높은 연구과제 발굴 및 향후 가족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이 코로나19 사태의 불안한 상황에서도 가족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족과 이용자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애쓰는 전국의 가족 서비스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들어가기 분석 개요

들어가기



언론동향



나가기



## 자료 수집·분석 단계

| 구 분                   | 자료 분석  |
|-----------------------|--|
| 모니터링 키워드<br>23개 기사 수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빅카인즈(BIG KINDS) 플랫폼 모니터링 키워드 23개 검색</li> <li>54개 언론사 온라인 기사 수집</li> </ul>   |
| 중복기사 삭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중치순 상위 50개 특성추출 자료를 기준으로 여러 모니터링 키워드 간에 중복되는 기사 삭제</li> <li>중앙지&gt;경제지&gt;방송사&gt;지역종합지&gt;전문지 순으로 중복되지 않는 기사 수집</li> </ul> |
| 유사도 기준<br>이슈 그룹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사 본문 명사상당어구를 기준으로 유사도 50% 이상인 기사들을 이슈별로 그룹화</li> </ul>   |
| 가족정책서비스<br>관련 이슈 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사업과의 연관성, 사회환경 변화, 가족정책 서비스와 관련도가 높은 이슈 그룹 선정</li> <li>그룹 외 기사 검토 및 관련 이슈 선정</li> </ul>                           |

## 수집 방법 및 기간

- 빅카인즈(BIG KINDS) 활용 언론 보도자료 수집**
  -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 54개 언론사의 온라인 보도내용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빅카인즈(BIGKINDS, WWW.BIGKINDS.OR.KR)'에서 모니터링 키워드를 검색하여 관련된 온라인 기사 수집

### 21. 1. 1. ~ 6. 24., 5차에 걸쳐 온라인 보도자료 수집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
| 1. 1. ~ 2. 19. | 2. 20. ~ 3. 26. | 3. 27. ~ 4. 27. | 4. 27. ~ 5. 27. | 5. 28. ~ 6. 24. |

## 모니터링 키워드 (23개)

- |             |           |           |             |          |
|-------------|-----------|-----------|-------------|----------|
| 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6 가족친화    | 11 양육비    | 16 가족상담     | 21 비대면가족 |
| 2 여성가족부     | 7 1인 가구   | 12 다누리콜센터 | 17 건강가정지원센터 | 22 비대면아동 |
| 3 가족서비스     | 8 공동육아니눔터 | 13 아동학대   | 18 코로나가족    | 23 비대면돌봄 |
| 4 한부모       | 9 일가정양립   | 14 아이돌봄   | 19 코로나아동    |          |
| 5 다문화       | 10 생활SOC  | 15 부모교육   | 20 코로나돌봄    |          |

## 온라인 기사 수집대상 언론사 (54개)

- 중앙지 (11)**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 경제지 (8)**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 방송사 (5)**  
KBS, MBC, OBS, SBS, YTN
- 지역종합지 (28)**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상일보, 경인일보, 광주매일신문, 광주일보, 국제신문, 대구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무등일보, 부산일보, 영남일보, 울산매일, 전남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제민일보, 중도일보, 중부매일, 중부일보, 충북일보, 충청일보, 충청투데이, 한라일보
- 전문지 (2)**  
디지털타임스, 전자신문

# 들어가기 상반기 언론보도 현황

들어가기



언론동향



나가기



## 차수별 수집 건수 도표 1

21년 1월~6월, 총 5차에 걸쳐 23개 모니터링 키워드로 총 35,053건의 온라인 기사를 수집하였다. 1차는 약 50일 기간을 대상으로 수집하여 가장 많은 12,555건의 기사를 수집하였고, 2~5차는 약 30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4,070~7,019건 기사를 수집하였다.

## 모니터링 키워드별 보도현황 도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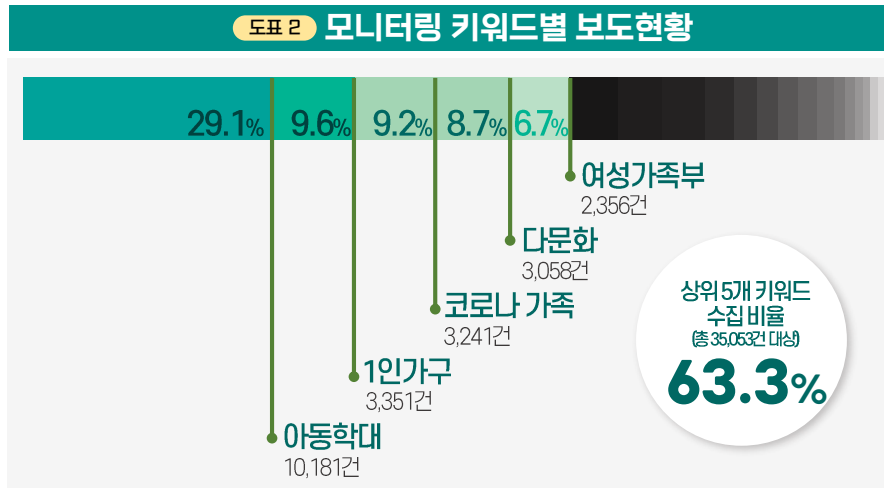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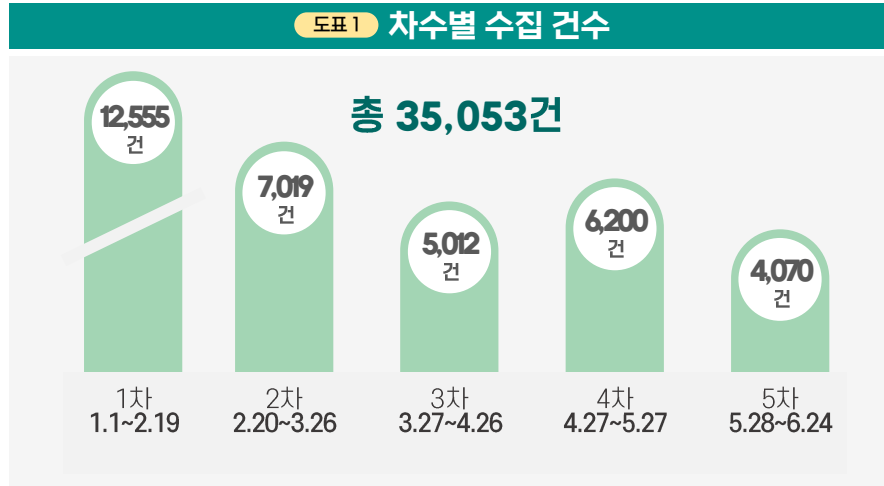
상반기 가장 많은 온라인 기사가 보도된 키워드 5개는 아동학대(29.1%), 1인가구(9.6%), 코로나가족(9.2%), 다문화(8.7%), 여성가족부(6.7%)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35,053건 기사의 63.3%를 차지한다.

## 언론사 보도현황 도표 3

23개 모니터링 키워드 관련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 54개를 대상으로 트리맵을 작성한 결과, 아시아경제, 중도일보, 세계일보, 머니투데이, 헤럴드경제가 가장 많은 기사를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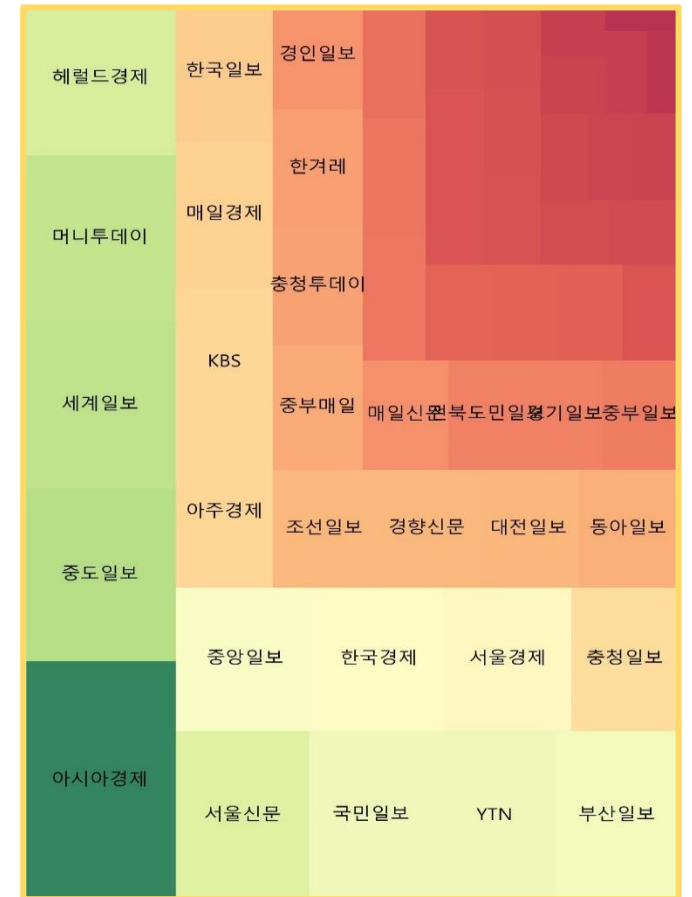
### 모니터링 키워드 23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여성가족부, 가족서비스, 한부모, 다문화, 가족친화, 1인 가구, 공동육아나눔터, 일가정양립, 생활SOC, 양육비, 다누리콜센터, 아동학대, 아이돌봄, 부모교육, 가족상담, 건강가정지원센터, 코로나가족, 코로나아동, 코로나돌봄, 비대면가족, 비대면아동, 비대면돌봄



## 도표 3 언론사 보도 현황 트리맵

35,053건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 54개 대상으로 분석  
보도 건수 상위 29개 언론사 이를 표기, 사각형 크기는 보도 건수 비례



# 언론동향으로 본 가족정책서비스 이슈



- 한 눈에 보는 상반기 이슈
- 코로나19
- 아동학대
- 다양한 가족
- 지역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유관기관 연구, 사업

언론동향으로 본 가족정책서비스 이슈

# 한 눈에 보는 상반기 이슈

2021년 1월 1일 ~ 6월 24일 중 온라인에 보도된 기사들을 수집·분석한 결과 38개의 주제, 6,752건의 기사가 가족정책서비스 관련 이슈로 선별되었다. 시기별 전국 지역센터의 사업관련 온라인 기사도 382건 추가로 선별되었다. 이들 이슈와 기사들을 종합 분석하여 상반기 가족정책서비스 주요 이슈를 '코로나19', '아동학대', '다양한 가족', '지역센터' 4개로 분류하였다.

들어가기



언론동향



나가기



| 1차(1.1.~2.19.)   | 2차(2.20.~3.26.)  | 3차(3.27.~4.26.)   | 4차(4.27.~5.27.)  | 5차(5.28.~6.24.)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로나19로 달라진 설 풍경</li> <li>코로나19와 돌봄문제</li> <li>코로나 장기화로 보육원 보호종료 아동 어려움 가중</li> <li>임신, 출산, 양육비 고민 카톡으로 확인</li> <li>아동학대 사건 주목, 대응 전문성 부족 문제</li> <li>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 건강가정기본법 수정 필요성</li> <li>양육비 이행 관리 강화</li> <li>사업 및 프로그램 홍보(강사모집,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등)</li> <li>명절음식만들기, 예절교육, 명절 가족상담운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로나19가 만든 청소년 아동 보호 사각지대</li> <li>코로나에 가족 돌봄까지, 여성에게 더 힘들어진 일터</li> <li>코로나19가 몰고 온 아동의 불행</li> <li>의료 방역 종사자, 아이 돌봄 서비스 24시간 받는다</li> <li>근로기준법으로 가족친화 근무제 보호하는 개정안 발의(재택근무)</li> <li>아동학대 논란 지속... 이번엔 '어린이집'</li> <li>'다문화 가정 아동' 이유로 발생한 학교폭력 비극</li> <li>다양한 가족 수용과 '아버지', 미혼부와 여성 우선 원칙</li> <li>내 가족은 댁댁이, 1인 가구가 이끄는 새로운 가족</li> <li>학령기 부모교육, 중도입국청소년교육, 가족학교, 한국어교육 등 개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장은 문닫고 돌봄 책임까지, '여성고용쇼크'</li> <li>학폭부터 성범죄까지, 디지털범죄에 노출된 아이들</li> <li>2020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코로나로 아이들이 어두워졌다</li> <li>코로나19 장기화, 더 힘들어진 장애인 가정</li> <li>4050 자영업 남성 1인가구에 치명적이었던 코로나 경기침체</li> <li>계속되는 아동학대, 촘촘한 사후관리 필요</li> <li>비혼모·갱거루족... 변하는 사회, 달라진 가족 관점</li> <li>양육비 이행률 21.2%→36.1%, 양육비 이행관리원 성과</li> <li>한국 아동 키우는 미혼 외국인에 양육비 지원</li> <li>청소년 미혼모, 가정방문 돌봄 서비스 도입 논의 필요</li> <li>가족, 1인가구 프로그램, 결혼 이민자 교육, 자조모임 등 운영 활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로나19로 바뀐 세상, 청소년과 보호자의 삶도 완전히 바뀌었다</li> <li>코로나 19 여파, 국제 결혼 감소... '랜선 맞선' 등장</li> <li>강화된 처벌에도 아동학대 재연... 이제는 사전예방, 선제적 조치에 힘쓸 때</li> <li>[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혼인·혈연 아닌 어도 가족으로 포용, 우려의 목소리도</li> <li>'양육비 이행법 개정', '구하라법' 도입</li> <li>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 30년째 제자리... +서울시,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신설</li> <li>가족축제 및 가족 프로그램 운영 (카네이션만들기 등)</li> <li>세계인의 날 세계문화축제 진행</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맞벌이 줄고 여성고용충격은 강력했다</li> <li>코로나 장기화 속에 노인 학대 증가</li> <li>연이은 아동학대 사건, 국민 요구 고려한 대응방안 마련</li> <li>법무부, '유령아동' 막기 위해 출생통보 의무법률 만든다</li> <li>가족실태조사 발표, 가족 형태·생활·가치관 뚜렷한 변화</li> <li>양육비 채무자 압박 강화, 이행 절차와 소송은 간소화</li> <li>맞벌이 가정 교육, 결혼이민자정서지원, 다문화재난진료체험운영</li> <li>글로벌 가족봉사단발족, 언택트 부모교육페스티벌</li> </ul> |

## 코로나19

## 아동학대

## 다양한 가족

## 지역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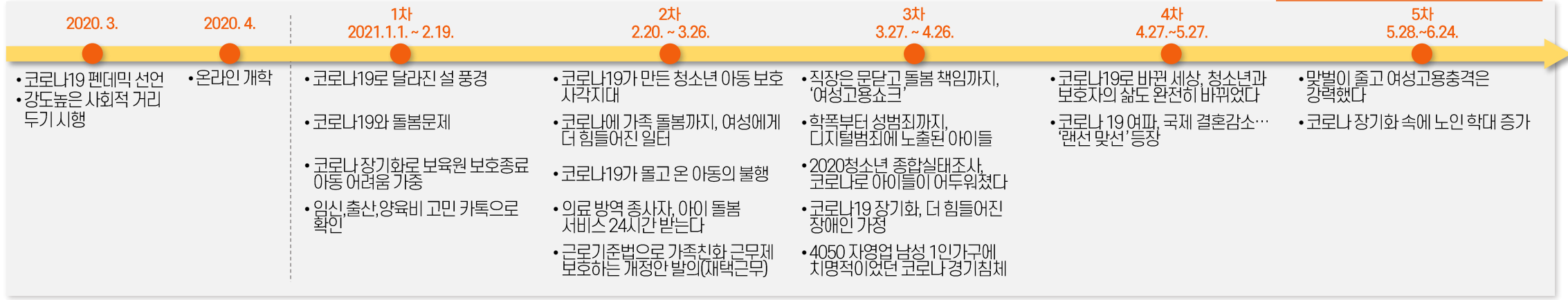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언론동향으로 본 가족정책서비스 이슈

## 코로나 19

관련 온라인 기사 445건



들어가기



언론동향



나가기



### 코로나19, 달라진 명절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로 인해 2020년 추석에 이어 2021년 설 명절 풍습도 많이 달라졌다. 화상통화를 이용한 비대면 세배, 온라인 추모, 4인 차례 등 새로운 문화가 발생했다. 하지만 여전히 대규모 차례나 친지 방문 같은 기존 명절 풍습을 고수하는 입장도 있어 가족간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 돌봄 사각지대와 아동·청소년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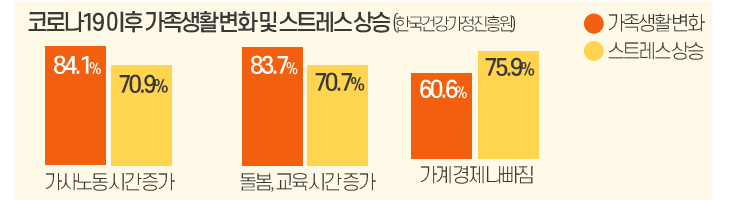
코로나19로 학교나 돌봄 기관에 가지 못하게 된 아이들이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돌봄 부담을 겪는 부모 등 보호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신종 감염병 사태로 온라인 활동이 늘어나면서 디지털 범죄에 노출되는 아동·청소년이 증가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결과(21년,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9년 디지털 성범죄 수가 19.3% 증가하고 피해자는 101.3% 증가했다.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21년,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의 사이버 학교 폭력 경험도 2018년 10.7%에서 2020년 26.7%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아동의 언어발달 지연, 사회성 발달 지연, 학력 양극화 등의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 돌봄 부담 증가와 여성고용쇼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60.6%는 가계 경제 어려움, 83.7%은 자녀 돌봄 및 교육 시간이 증가했다.(포스트코로나가족서비스 수요조사(20년, 한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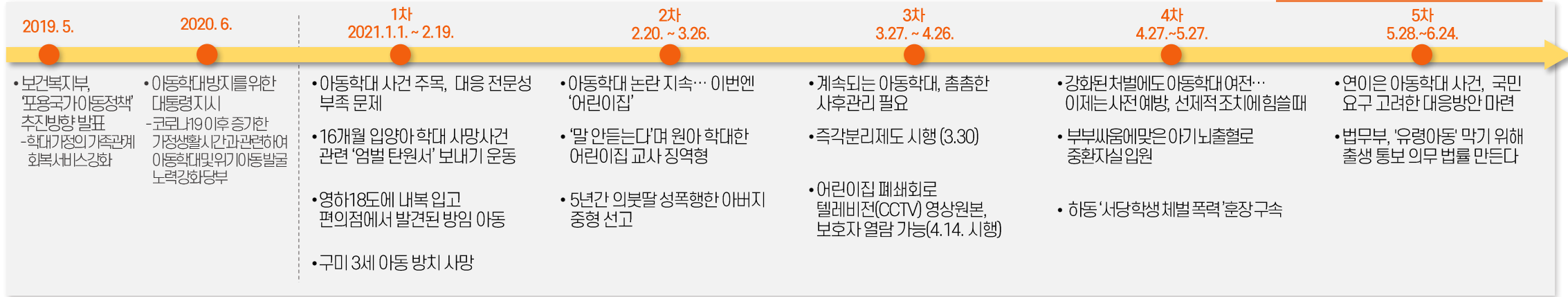
특히 여성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고용에 큰 타격을 입었으며, 원인은 여성 취업자가 일을 포기하는 경우와 등교 중지로 자녀 돌봄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코로나19 고용충격의 성별격차와 시사점(21년, 한국개발연구원))

### 가족의 돌봄 책임과 역할 분산 필요

아동·청소년 문제 외에도 노인 학대가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이후 가족 내 돌봄 관련 문제가 많아졌다. 이에 돌봄 책임과 역할을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눌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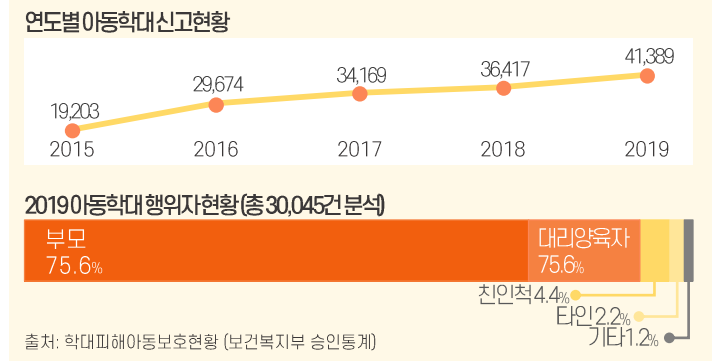
# 언론동향으로 본 가족정책서비스 이슈 아동학대

관련 온라인 기사 5,772건



## 연이은 아동학대 사건으로 충격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입양 271일 만에 사망한 16개월 아동 사망 사례를 다루며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부모, 어린이집 교사, 친지 등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아 가해자 처벌과 재발방지 기능 강화 요구가 높아졌다.



## 코로나19와 아동학대

코로나19 이후 아동이 가정에 고립되면서 아동학대 신고와 판정 건수가 증가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민감성이 높아지고, 실제로 방임 사건이 증가 추세로 전환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최근의 아동학대 사건들은 감춰진 사례가 많고 신고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 아동학대 사건 대응 노력과 한계

21년 3월에는 '즉각분리제도'를 시행, 2회 이상 신고된 아이의 재학대가 우려되는 등의 상황에 아동을 가해의심자와 분리할 수 있게 되었다. 같은 달 아동학대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한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발효되기도 하였다.

보건복지부도 아동학대 방지 사업을 효율화 하기 위해 예산을 일원화 하였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아동학대범죄 양형 기준도 강화 수정하기로 하는 등 국민 정서를 고려하여 제도와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노력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대응방안에는 여전히 한계점이 있어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즉각분리제도 시행으로 분리 조치된 아동이 크게 증가했으나 이들을 임시 보호할 쉽터가 부족하고,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전담 공무원 등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이미 마련되어 있는 각종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않거나, 각 담당 기관의 전문성 부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들어가기



언론동향



나가기



# 언론동향으로 본 가족정책서비스 이슈

## 다양한 가족

관련 온라인 기사 518건



들어가기



언론동향



나가기



### 비혼모, 1인가구, 갱겨루족... 가족 관점의 변화

자발적 비혼모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두고 벌어진 찬반 논쟁, 결혼과 출산 계획을 미루는 청년층과 부모와 함께 사는 30대 미혼의 증가, 전체의 30%를 웃도는 1인 가구 비율 등 과거의 '가족' 보다 훨씬 다양해진 가족 양상이 주목을 받고 있다.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 19~79세 국민의 69.7%가 '혼인, 혈연이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 이라고 응답하여 국민들의 인식도 기존의 가족개념보다 훨씬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여성가족부)

6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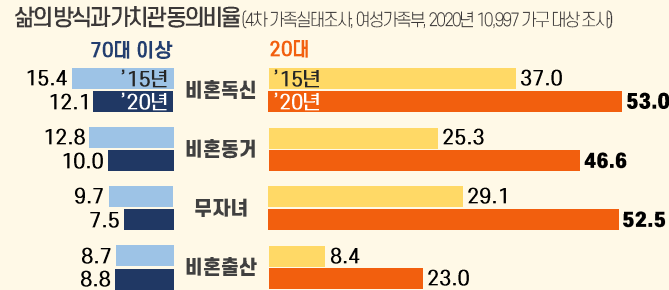
↳ 혼인·혈연관계 아니어도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면 가족

70.5%

↳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 찬성

### 뚜렷해진 가족가치관과 생활상 변화

여성가족부가 '4차 가족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1인 가구 증가세가 두드러졌으며, 연령대별 삶의 방식이나 가족 가치관 차이가 뚜렷이 나타났다. 특히 20대를 중심으로 비혼 독신, 무자녀를 긍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 가족에 대한 인식변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세상 모든 가족 함께'

다양해진 가족 형태와 달라진 가족가치관을 반영해 여가부가 21년 4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의 세 가지 큰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가족이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가족다양성 포용**. 둘째, 형태에 따른 낙인이나 차별 없이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의 여건 보장**. 셋째, 개인 권리인식 증가를 반영한 **가족 구성원 개개인 존중**.

이에 대해 변화하는 사회상과 개인의 권리 등을 존중하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 새로운 정책이 전통적 가족의 해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어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

# 언론동향으로 본 가족정책서비스 이슈

## 다양한 가족

들어가기



언론동향



나가기



### 부모 양육 의무에 대한 관심

양육 의무를 다 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 이후 재산을 상속받거나 연금을 수령하는 등 국민정서와 괴리가 큰 사건들로 양육비 이행과 양육 의무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이에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 의무위반 내지 학대가 발생할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권상실제도’가 포함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도 6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공무원연금법도 손보아 동거 기간, 경제적 지원여부, 학대, 범죄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 책임을 다했는지 판단한 후 유족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한 한 단체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는 제도권 밖에서 발생한 신상정보 유출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었으나 한부모 가정의 출산, 양육, 사회관계, 취업 어려움 해소를 위해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이행 의무가 중요하다는 데에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유도하기도 했다.

### 양육비 이행책임 강화

양육비 이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법과 제도권 내에서 양육비 이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법안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요청이 가능해지고,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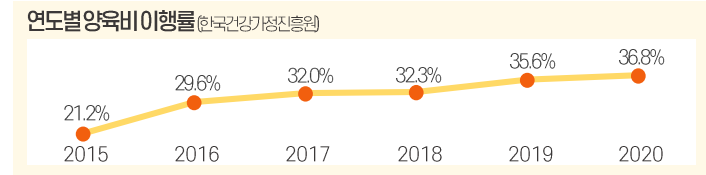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주요내용(근의적양육비채무불이행자대상)

|         |            |   |
|---------|------------|---|
| 운전면허 정지 | 21.6.10 시행 | 감치명령결정을 받은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시·도 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
| 출국금지    |            | 양육비 채무가 5천만원 이상인 양육비 채무자 등이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이며 국외 거주 직계존속비속 사망 등은 출국금지 해제 요청 대상자 |
| 명단공개    | 21.7.13 시행 | 명단공개는 공개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실종선고, 파산선고, 양육비 전부 이행 등 인 경우 명단 삭제      |
| 강제징수    |            |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한 경우 그 지원금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                          |
| 형사처벌    |            |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출처: 여성가족부

### 한부모 양육부담 덜어주는 환경 구축

정부는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하여 한부모가족이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양육비 이행지원(협의, 소송 및 추심,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까지 수행하도록 하여 양육비 이행률을 크게 증가시켰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는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양육비 이행은 당연한 의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양육비 채권자의 실직이나 폐업, 양육비 채권자·미성년 자녀의 질병 또는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등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대 12개월 지급(최대 연 240만원)한 후 채무자에게 구상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소득기준 상향방안을 추진 중이다.

### 다문화 가정 30년, 인식은 제자리?

90년대 급속한 글로벌화와 함께 다문화 가정이 늘어난 지 한 세대(30년)가 지났으나, 여전히 많은 다문화 가정 가족들이 이방인 취급받거나 백인과 동남아 혼혈 사이에도 차별을 받는 경험을 하고 있다.

2018년 다문화수용성조사(여성가족부)

국민다문화수용성지수 **52.81** 100점 만점

지난 2월에는 울산에서 한 중학생이 단지 다문화 자녀라는 이유로 학교폭력을 당한 사고가 있어 충격을 주었다. 이 외에도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이 학교폭력 피해자가 되기 쉬운 경향이 있어 다문화 가정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언론동향으로 본 가족정책서비스 이슈

# 지역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온라인 기사 382건

2020. 3.

-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 지역센터 휴관 조치 (상황에 따라 휴관 및 개관)

들어가기



언론동향



나가기



2021년

월별 이슈에 맞춰 시의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했으며, 대면(소규모, 멘토링) / 비대면(키트제공, 영상 공모전 등)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

- 1월**
  - 2020년 사업 운영 평가 우수사례발표, 2021년 운영 계획에 대해 논의
  -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원 확대 운영 홍보
- 2월**
  - 명절음식만들기(결혼이민자), 전통 예절교육 **설명절**
  - 설 연휴 기간 동안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족상담전화 여성긴급전화 청소년상담전화 운영
  -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하향 조정으로 순차적 개관
- 3월**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 대상 입시정보 교육(비대면), 중도입국 자녀 양육자 교육 **신학기**
  - 센터 프로그램 개강 및 참여자 모집(가족 학교,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취업지원 교육)
- 4월**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교육·한국어교육, 예비부부교실, 다문화 강사 역량강화교육,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부모교육, 가족 참여 프로그램, 1인가구 상담 운영, 비대면 면접 교섭 서비스 개시
- 5월**
  - 가족축제(가족사진 영상 공모전, 집콕 키트 제공, 랜선 운동회) **가정의달** **어린이날** **부부의날**
  - 부부의 날 기념 관계증진 프로그램(편지쓰기, 식물 가꾸기, 부부세미나), 감사 카네이션, 케이크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 세계인의 날 맞이 다문화어울림한마당 등 세계문화축제 개최 **세계인의날**
- 6월**
  -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취업지원 교육,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교육, 다문화가족 자조모임·도서 지원, 부모교육, 부부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지역센터 운영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역사회내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단계별로 시행되었고, 이에 건강가정

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지역센터)

는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대면·비대면 등 운영방식을 다양화 하여 운영 중이다.

|     |  |
|-----|--|
| 비대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줌(ZOOM), 유튜브(YouTube), 네이버밴드 등 다양한 플랫폼 활용</li> <li>• 키트 제공, 센터 SNS 활동내용 공유, 그림 및 사진 공모전, 감사 편지 쓰기, 가족상담(화상, 전화, 사이버상담) 등</li> </ul> |
| 대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부모교육·다문화이해교육, 가족상담, 가족 숲 걷기,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부부 캠프 등</li> <li>•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한 소규모 대면 운영</li> </ul>                          |

언론동향으로 본 가족정책서비스 이슈

# 유관기관 연구, 사업

들어가기



언론동향



나가기



|                                      |  |  |  |   |
|--------------------------------------|--|--|--|---|
| <p><b>1차</b><br/>1. 1. ~ 2. 19.</p>  | <p><b>한국여성정책연구원</b><br/>이주여성의 사회적 포용을 위한 정책 대응 방안: 사회 참여 확대를 중심으로<br/>• 한국사회에서 이민자, 이주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p>       | <p><b>육아정책연구소</b><br/>아동의 이익이 최우선되는 입양을 위한 국내 입양 과정의 단계별 개선점<br/>• 입양 과정 단계별로 국내 입양제도의 개선점 제언</p>                          | <p><b>국회입법조사처</b><br/>'나홀로 출산' 미혼모의 출생신고 개선 과제<br/>• 나홀로 출산 출생신고가 거부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규정내용 명확화, 119 구급대원 조력을 출생신고 요건에 포함하는 등 방안 제언</p>        |   |
| <p><b>2차</b><br/>2. 20. ~ 3. 26.</p> | <p><b>국회입법조사처</b><br/>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 과제<br/>• 관련 현행법의 현실 적용 한계 문제 제기, 가해/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방안 제시</p> | <p><b>한국보건사회연구원</b><br/>보건복지포럼 이달의 초점: 가족, 세대, 인구 현상에 대한 인식<br/>• 가족 형성, 가족 내 성 역할, 세대갈등, 인구 현상 등에 대한 주제로 논의</p>           | <p><b>한국여성정책연구원</b><br/>저출산 대응 정책 패러다임 전환 연구(II): 저출산 대응 담론의 재구성<br/>• 돌봄을 전담하는 여성이 더 이상 집에 있지 않다는 새로운 전제로 사회적 돌봄 체계 재구성 필요성 제언</p>      |   |
| <p><b>3차</b><br/>3. 27. ~ 4. 27.</p> | <p><b>통계청 통계개발원</b><br/>저(低)혼인 시대, 미혼남녀 해석하기<br/>• 고용불황과 저성장 시대, 치솟는 주거비용은 결혼 진입장벽을 높임<br/>• 미혼남녀 중 쉼터족이 절반 이상 차지</p>  | <p><b>한국개발연구원</b><br/>코로나19 고용 충격의 성별 격차와 시사점<br/>• 고용 성별 격차는 여성 노동자 비율이 높은 업종 특성, 가정 내 자녀 돌봄 부담이 여성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으로 분석</p> | <p><b>여성가족부</b><br/>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br/>•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 유희, 채팅앱, SNS 등 새로운 성매매 매수 경로 포착<br/>• 조사, 수사 방법, 처벌 등 개선 방향 도출</p>  | <p><b>국회입법조사처</b><br/>아동학대 관련 언론 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br/>• 자극적인 이야기 구성, 허위 조작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 등 지적<br/>• 제재 조치 및 규제 강화 제시</p>                   |
| <p><b>4차</b><br/>4. 27. ~ 5. 27.</p> | <p><b>한국보건사회연구원</b><br/>코로나19 시기의 연애·결혼·출산<br/>• 생애과정에서 현상으로 드러난 의도와 행동의 변화를 분석, 코로나19가 연애, 결혼, 출산에 가져온 변화 분석</p>      | <p><b>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b><br/>코로나19 이후 1년, 청소년 정신건강 변화 기록<br/>• 적응 스트레스를 겪은 팬데믹 이후 1년, 청소년 정신건강 변화 파악 및 심리 지원 방안 제시</p>       | <p><b>국회입법조사처</b><br/>디지털 시대를 위한 DNA 정책의 현황과 과제<br/>• 코로나19 이전만 만들어진 디지털 정책 재정비 방향 도출<br/>• 디지털 소외군을 고려한 디지털 통합 대안 마련 필요성 제시</p>         | <p><b>한국여성정책연구원</b><br/>「한부모가족실태조사」를 통해 본 양육비 이행 실태 및 개선 방안<br/>• 양육비 이행 지원 체계 5년 평가<br/>• 양육비 채권 소유, 비양육 부모와의 관계, 양육비 이행 간의 관련성 분석</p> |
| <p><b>5차</b><br/>5. 28. ~ 6. 24.</p> | <p><b>한국개발연구원</b><br/>여성 경제활동 증가에 대응한 초등 돌봄 체계 개선 방안<br/>• 돌봄 서비스의 법적 제도 정비, 양적 확대, 질적 수준 향상을 제언</p>                   | <p><b>국회입법조사처</b><br/>홈리스 청소년 지원 입법정책 과제: 가정복지 프레임워크를 넘어<br/>• 법률에 홈리스 청소년 개념 도입, 주거권의 폭넓은 보장과 자립 지원 서비스 등 제언</p>          | <p><b>국립재활원</b><br/>장애인의 코로나19 경험과 문제점<br/>• 코로나19 이후 건강이 약화된 비율은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높음<br/>• 코로나19 이후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고통으로 삶의 만족도 크게 감소</p> |   |

## 유관기관 동향

-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들의 예방과 사후조치를 위한 연구 및 포럼, 조사 등이 여러 기관에서 이루어졌다.
- 다양한 가족과 관련하여 저출산, 저혼인과 같은 사회적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와 통계자료 등에서 정책 패러다임 변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코로나19가 가족가치관, 돌봄, 여성 경제 활동, 장애인의 삶, 청소년 정신건강 등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도 다수 발표되었다.

## 코로나19 이후 가족생활 진단

코로나19 감염병 상황 장기화로 변화된 가족들의 일상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가족서비스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 나가기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사업대응 현황
- 향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서비스 방향

# 나가기 한가원 사업대응 현황

## 코로나19

|                          |   |  |
|--------------------------|---|--|
| 공동육아나눔터 긴급돌봄 서비스 운영      | 공동육아나눔터를 활용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돌봄공백 해소 | · 공동육아나눔터 소개 <a href="#">바로가기 클릭</a><br>· 온라인 가족포럼 '코로나19 돌봄공백 지원 현황과 과제' 영상 <a href="#">바로가기 클릭</a>                     |
| 지역돌봄공동체 지원               | 지역사회 내 주민주도 돌봄공동체 지원                              | · 우리동네 돌봄공동체 <a href="#">바로가기 클릭</a>   |
| 코로나19 관련 심리상담 전화/ 모바일 상담 |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무력감 관련 상담 제공                       | · 온라인 상담실 <a href="#">바로가기 클릭</a><br>· 전화: 1644-6621 / 모바일: 카카오톡 '가족상담전화'  |
| 코로나19 관련 가족서비스 구축 연구     | 코로나19 이후 가족생활 변화 및 가족서비스 수요조사                     | · 온라인 가족포럼 영상<br>- 포스트코로나 가족서비스 전망과 과제 <a href="#">바로가기 클릭</a><br>- 포스트코로나 가족가치관 및 가족문화변동 예측과 전망 <a href="#">바로가기 클릭</a> |
| 사회적재난 비상훈련 시범사업          | 사회적재난발생 시 지역센터와 종사자의 안전 대비를 위한 시범훈련 실시            | -  |
|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아동 확대        |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양육비 지원 대상 범위 확대            | -  |

## 아동학대

|                        |  |  |
|------------------------|--|--|
|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의 위험에 노출된 위기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실시 | · 가족역량강화지원 소개 <a href="#">바로가기 클릭</a>                    |
| 방임아동청소년 원가정기능회복 지원사업   | 원가정과 분리되어 양육되는 아동 및 청소년의 원만하게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 방임(보호) 아동·청소년 원가정 기능회복 지원사업 소개 <a href="#">바로가기 클릭</a> |
| 아이돌보미대상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 아이돌보미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 -  |

## 다양한 가족

|                           |  |   |
|---------------------------|--|---|
| 가족센터SOC 컨설팅 사업            | 생활SOC 복합화 일환으로 추진·건립되는 가족센터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실시                | · 가족센터 사업소개 영상 <a href="#">바로가기 클릭</a><br>· 가족센터 우수사례 영상 <a href="#">바로가기 클릭</a><br>· 가족센터SOC 소통페이지 <a href="#">바로가기 클릭</a> |
| 한부모가족사업                   | 스스로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미혼모·부가족을 위하여 경제적 자립과 정서적 안정 등 자녀 양육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   | · 한부모가족사업 소개 <a href="#">바로가기 클릭</a>  |
| 다누리배움터 운영                 | 국민 누구나 쉽게 다문화 이해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다누리배움터'를 통한 온라인 교육 실시                | · 다누리배움터 <a href="#">바로가기 클릭</a>  |
| 다양한 가족 수용성 증진 교육          | 국민 대상 다양한 가족 수용성 증진을 위한 전문강사 보수교육 실시, 다양한 가족 이해교육 시범 운영, 교육 콘텐츠 개발 | -   |
| 다양한 가족 편견해소 모니터링 사업       | 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가족 편견과 관련된 표현 등이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   |
| 결혼이주여성 자립역량강화 및 자녀 진로지원사업 |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한 교육지원과 결혼이민자들의 취업역량을 강화 지원 사업(포스코 1% 나눔재단)            | -   |

들어가기



연론동향



나가기





# 나가기 향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서비스 방향

들어가기



연론동향



나가기



1 2 3

## 위기 상황에도 안정적으로 가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ICT를 활용한 가족서비스 디지털 전환 기반 구축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새로운 행동규범으로 우리 사회에 자리매김하면서 비대면 서비스가 산업·공공서비스 등 사회 전반에서 급부상하게 되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 역시 대면 중심의 휴먼서비스 방식에 변화와 혁신을 요구받게 되었다.

코로나19 확산 전 지역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이용자 비율이 89.9%였으나, 확산 이후에는 61.9%로 급감하였다.\* 지역센터는 위기가정을 중심으로 긴급 개입이 필요한 경우 비대면 가족 상담을 운영하거나,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키트를 배송하는 등 기존 프로그램 방식을 비대면으로 전환 운영하여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비대면 서비스의 폭발적인 성장은 일시적 유행으로 끝나지 않고 종국적으로 사회·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전통적 가족서비스 이용 시스템을 ICT와 결합하는 디지털 전환과 대면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방식 변화에 박차를 가할 때이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지역센터 이용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인 실무자의 비대면 서비스 관련 요구를 분석하여 이용자 중심의 ICT 기반 서비스 운영 환경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향후 전국 규모의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등 비대면 서비스 제공 상황에도 공백없이 안정적으로 가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해 갈 예정이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20), 포스트코로나 가족서비스 수요 조사

1 2 3

##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른 세상 모든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서비스 발전방안 모색

제4차 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21)에 따르면 2020년 1인가구 비율이 30%를 넘어서고 전형적인 가구로 여겨졌던 부부와 미혼자녀구성 가정은 크게 줄어들었다. 혼인과 출산이 감소하고 만혼이 증가하면서 가족 생애 주기도 달라졌으며, 구성원 개인의 권리가 강화되는 등 가족 생활과 가치관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가족정책의 기본 관점을 다양성, 보편성, 성평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여성가족부, '21.4.27.)을 발표한 바 있으며, 한국건강가정진흥원도 이에 발맞춰 가족서비스를 발굴·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여성가족부와 함께 가족다양성을 포괄하면서 모든 가족이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보편적인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년도부터 '21년 현재까지 93개 가족센터SOC 컨설팅을 추진중에 있으며, 컨설팅을 통해 가족센터가 교육, 돌봄, 소통의 기능을 수용하면서 다양한 가족의 교류와 전세대를 아우르는 통합적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가족센터가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서비스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가족다양성 인식개선 및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 1,357개의 광역자치단체 웹페이지의 가족 차별, 가족 편견, 사회적 고정관념 등과 관련된 표현을 점검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술 적용을 통해 모니터링 방식과 채널을 다양화해 나갈 예정이다.

# 향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서비스 방향

들어가기



연론동향



나가기



①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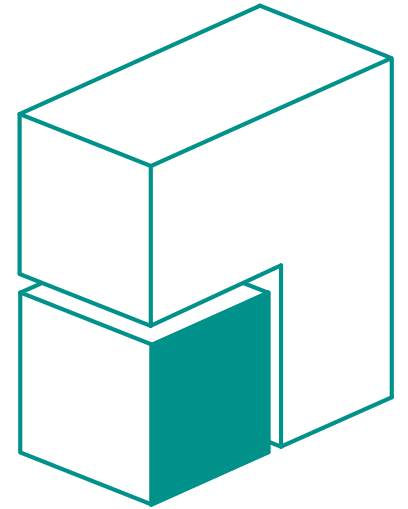
## 지역사회와 함께 안전한 돌봄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가족 사회 안전망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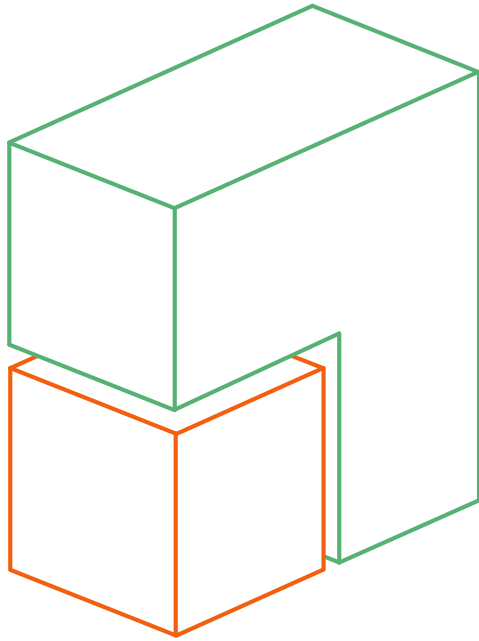
코로나19가 촉발한 상시 감염병시대 사회적 위기 상황은 가족 구성원의 일상과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보육·보호 기관의 휴원으로 가정 내 돌봄의 역할은 사회에서 가족으로 회귀되었다.

학교 등 돌봄 기관에 가지 못하게 된 자녀들의 돌봄 공백으로 방임 위기에 처한 아동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였으며, 가정폭력 등 위험 상황에 노출된 아이들을 발견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실제 '21년 상반기 가족정책서비스 관련 언론 보도 35,053건 중 29.1%가 아동학대, 9.2%가 코로나시대가족과 관련한 기사들이었다.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돌봄망, 방역망을 강화해야 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주민 간 연대와 협력, 아동에 대한 안전한 돌봄과 보호의 구심점으로서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시대 돌봄공백해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공동육아나눔터의 긴급돌봄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급돌봄서비스 운영가이드'를 개발하여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센터 실무자들의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가족 돌봄과 관련하여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촘촘한 가족 사회 안전망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안전한 돌봄 체계망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202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가족정책서비스 관련 동향보고 상반기